

제 1장: 한민족의 기원

이 단원은 한민족의 기원을 합리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의 중등교육에서는 한민족의 기원과 관련하여 단군신화만을 강조하여 기원전 2,333년에 세워졌다는 고조선으로 직접 연결시키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10월 3일이 개천절로 공포된 것도 이런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은 국내에서는 통할 수 있으나, 국제무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단군신화 관련 자료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3세기 무렵에 작성된 □삼국유사□이므로, 그 내용의 역사적 신빙성을 일방적으로 강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민족의 뿌리와 기원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추적하여 재구성할 수 있을까?

어떤 민족의 기원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좋은 단서가 되는 것으로는 언어학, 고고학, 유전학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이 단원에서는 인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언어학과 고고학적 접근을 통해 한민족의 기원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영어판 본문에서 설명하였듯이, 한국어 문장 구조는 중국어와는 전혀 다르고, 일본어나 만주어, 몽골어, 터어키어 등 중앙아시아 언어와 유사성을 보인다. 이점은 비록 한민족이 후대에는 중국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지라도, 그 기원에 있어서만큼은 중앙아시아와도 연관이 있다는 좋은 방증을 제공한다. 어떤 두 민족이 서로 같거나 매우 유사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면, 그 두 민족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인가 서로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했거나 공유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고 유물들도 좋은 단서를 제공한다. 한민족이 중국인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인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물로는 토기와 청동검을 들 수 있다. 먼저,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은 토기인데, 토기의 유형으로 분류해 볼 때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명은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뉜다. 하나는 황하유역 및 양자강 하류 지역에 분포한 홍도(red pottery)와 흑도(black pottery) 문화권이고, 다른 하나는 몽골평원에서 시작하여 요서와 요동, 만주, 한반도에 널리 분포한 빗살무늬토기(comb-pattern pottery) 문화권이다. 전자가 대체로 흔히 말하는 중국문명의 토대가 된다면, 후자는 그 황하문명권을 북쪽과 동쪽에서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문명권으로 볼 수 있는데, 한반도는 바로 이 문명권에 속한다. 이런 분포는 한민족의 기원과 관련하여 앞서의 언어학적 개연성을 강화시켜준다. 청동기시대에도 토기는 매우 중요한데, 역시 동아시아 전체를 놓고 볼 때, 황하문명권의 토기와 다른 문명권의 토기는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널리 퍼진 무늬없는토기(patternless pottery)는 이전의 빗살무늬토기와는 전혀 다른 유형이며, 무늬없는토기가 빗살무늬토기와 함께 발굴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점은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하던 한반도의 신석기문명이 무늬없는토기를 사용하던 청동기문명에 의해 종말을 고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그렇다면 신석기인들이 청동기인들에 의해 정복되었거나 융화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듯, 한반도를 중심으로 볼 때,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문명의 주도 세력이 교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빗살무늬토기에서 무늬없는토기로 단계적으로 진화해 갔음을 알려주는 중간형태의 토기가 전혀 출토되지 않는 점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한편 청동검도 한반도의 청동기문명이 황하유역의 청동기문명과 달랐음을 알려 주는데, 가장 좋은 예는 청동검의 양식이다. 한반도의 대표적인 청동검은 비파형동검(mandolin-shaped bronze dagger)인데 그 특성은 교재의 그림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동검은 황하문명권에서는 발견된 바 없고, 한반도 및 만주, 요동, 요서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된다. 특히 그 중심지는 한반도가 아니라 지금의 요서지역이며, 요동반도에도 집중되어 있다. 이점 또한 청동기시대까지도 한민족은 중국의 황하문명보다는 중앙아시아계통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청동기문명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같은 청동기시대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청동검의 양식에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청동기시대 후반부에는 세형동검(polished dagger)이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동검이 한반도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그런데 이 동검은 오직 한반도에서만 발견된다. 또한 비파형동검이 세형동검으로 점차 진화했음을 시사해 줄만한 중간형태의 동검도 일부 확인이 된다. 그렇다면,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 사이에 존재하는 분포상의 차이 및 시간상의 차이에 근거하여 흥미로운 추론을 할 수 있다. 즉 청동기시대 어느 시점에서부터 비파형동검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점차 누군가에 의해 자기들의 본거지인 요서지역을 상실하고 요동을 거쳐 한반도로 점차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동검의 형태도 점차 세형동검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종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후 한반도에서 한민족을 이루게 될 조상들은 예전에 요서지역에서 비파형동검 문명을 이룩하였으나, 어떤 세력에게 밀려 점차 동남쪽으로 남하하다가 결국 한반도에까지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들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도 가능성이 높은 해석이다.

가장 오래된 비파형동검의 제작 시기는 대략 기원전 10세기에서 15세기 무렵일 것으로 추정되며,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는 대략 기원전 3,000년 또는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을 현재 한민족의 조상으로 볼 수 있다면, 굳이 단군신화를 예로 들지 않고서도 한민족의 역사를 5,000년 정도 소급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들이 이후 청동기인들에게 정복 또는 융화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국역사의 주인공은 청동기문명을 가지고 한반도로 들어온 사람들이며, 한민족은 나중에 이주해온 청동기인들과 이전부터 있던 신석기인들이 한반도에서 뒤섞이며 새롭게 탄생한 종족으로 볼 수 있다.

수업 시 가능한 추가 설명(1) 교재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최근에 보고된 유전학적 자료들은 동아시아 인종의 기원과 구성에 대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에 따르면, 부자간에 유전되는 Y염색체 DNA의 경우에, 현재 중국인 남성의 약 50%, 한국인 남성의 25%, 일본인 남성의 15% 정도가 같은 Y염색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00에서 25,000년 사이에 남중국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Y염색체로부터 연유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인 남성의 35% 정도는 30,000년에서 35,000년 사이에 북방방아시아 지역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Y염색체에 기원을 둔 Y염색체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모녀 사이에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DNA의 경우는 한국인 여성의 기원이 남성보다도 더 복잡함을 보여줍니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현재 한국인의 기원이 단일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유전학적 데이터는 현재 한국인의 구성분포가 다양하다는 것은 보여줄 뿐이지, 그것이 곧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사람과 문화의 교류는 시대가 내려올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2만년 이전의 동아시아 지형은 현재의 지형과 같지도 않았으므로, 저런 유전학적 데이터에 의지하여

인류의 문명이 본격화 하던 신석기 및 청동기 시기의 문명권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컨대, 선사시대의 문명권과 관련해서는 언어학과 고고학이 더 유용하며, 특히 고고학이 절대적입니다.

복습용 토론 주제들(1) 어떤 민족의 기원을 추적할 때 가능한 접근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새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야기해 봅시다.

(2) 미국인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인은 중국인이나 일본인의 아류(offspring)가 아닙니다.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인을 소개할 기회가 온다면, 한국인이 중국인이나 일본인의 아류가 아니라, 세계 여타 지역민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원이 복잡하고 구성요소 또한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면이 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2. 고조선과 단군신화

한국문명의 시작으로 알려진 고조선의 역사적 실체는 무엇일까? 신화의 내용만으로 그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을까? 단군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지상의 곰 여인 사이에서 출생하였을까? 당시 고조선인들이 남긴 역사기록이 전무한 상황에서, 고대 중국인들이 남긴 고조선 관련 기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외국인들에게 고조선을 소개할 때 그 역사적 신빙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단원은 이런 일련의 질문들에 대해 합리적이고도 논리적인 답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조선의 역사를 재구성함에는 먼저 중국 측 기록을 참고할 수 있으며, 단군신화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보장할 수 있다.

중국 측 기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고대사의 흐름을 간단히 알 필요가 있다. 황하와 양자강 유역을 최초로 정치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소위 ‘중국’ 문명의 토대를 구축한 왕조는 주나라(Zhou Dynasty, 1045?~256 BCE)였다. 그런데 8세기 무렵에 중앙아시아 방면으로부터 침입을 당해 황하 상류 지역에 있던 도읍을 황하 중류 지역으로 옮겼는데, 이 사건을 기준으로 삼아 이전 주나라를 서주(Western Zhou, 1045?~771 BCE), 이후의 주나라를 동주(Eastern Zhou, 770~256 BCE)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동주는 이후 서서히 쇠퇴하였고 그 틈을 타 전역에서 반독립적인 세력들이 성장하여 주나라 중앙의 권위는 추락하였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서 중국(중원) 전체가 끊임없는 전쟁으로 점철된 시기를 전국시대(戰國時代, Warring State Period, 475~221 BCE)라 부른다. 수많은 전국(warring state)들 중에서 동북쪽에 위치하여 고조선과 접한 나라는 연나라(Yan)였다. 나중에 모든 전국들은 진시황으로 유명한 진나라(Qin Dynasty)에 의해 패망함으로써 중국은 재통일되었다. 그러나 진나라는 곧 한나라(Han Dynasty)로 바뀌었다. 따라서 고조선에 관한 단편적인 기록들은 주로 연나라 사람들과 한나라 사람들이 남겼다. 교재의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한 연나라의 고조선 관련 기록과 연나라가 건축한 장성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앞서 다룬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의 분포에 보이는 시공간적 차이와 함께 고조선 역사의 전개 방향을 추론할 수 있다. 즉 고조선이 실재하였다면, 그것은 가장 오래된 비파형동검들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요서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비파형동검에 기초한 고조선 문명의 중심은, 연나라 기록에 보이듯이, 점차 연나라에게 밀려 요서를 상실하면서 요동으로, 다시 요동에서 한반도 방면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고고학으로 본 고조선 역사와 기록으로 본 고조선의 역사가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고조선의 역사적 실체와 관련하여 시사해주는 바가 큰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이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요서지역의 비파형동검 문명이 곧 고조선 문명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아직 없다는 사실이다. 만일 어떤 글씨가 새겨진 청동유물들이 요서지역에서 발견된다면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요서지역의 비파형동검 문명이 중국의 황하문명과 다르며, 오히려 만주와 한반도의 청동기문명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만이 드러난 사실이다. 요서지역의 청동기 문명과 고조선문명을 동일한 문명이라고 단정할 결정적 증거가 아직 없어 아쉬운 실정이다. 그렇더라도, 정황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볼 때, 요서지역의 청동기문명이 고조선문명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단군신화를 분석함으로써 고조선의 기원과 지배층의 성격을 살펴보자.

단군신화는 한국인이라면 이미 대개 알고 있을 것이므로, 여기서 전문을 소개하지는 않고, 다만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섯 단계로 구분하여 요약한 것을 영어판 본문에 제시하였다. 거기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분석의 핵심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단군으로 대표되는 건국자들은 그 지역의 토착민이라기보다는 어디로부터인가 이주해온 이주민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문제는 ‘하늘’로부터 정말 하강했다고 믿을 수는 없으므로, 그 본래 거주지가 어느 지역이었는지가 관심이 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제반 고고학적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단군으로 대표되는 이주민 집단은 아시아 대륙 내 타 지역에서 이동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둘째, 이 이주민 집단은 토착민들보다 문명적으로 우세하였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던 지역에 와서 자기들의 힘을 부식하고, 또한 어느 정도 확장할 수도 있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들은 강력한 세력이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토착민들을 일방적으로 제압할 정도로까지 강력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건국 과정에서 토착민들과 약간의 충돌은 있었겠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토착민들과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건국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고조선은 연합정권이었다는 것이다.

셋째, 고조선의 도읍지는 적어도 두 차례 이동하였다는 점이다. 비록 신화에서는 그 이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앞서 다른 갖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기록은 신빙성이 높으며, 더 나아가 고조선의 요서 발생설 및 한반도 이동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준다. 요서지역에서 요동지역으로, 다시 요동지역에서 한반도지역으로의 이동은 청동기시대의 고고유물을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으며, 이런 추론은 앞서 살펴보듯이 일부 문헌 기록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한편 고조선의 왕실을 대체한 위만조선의 성격도 이주민 집단과 토착민 집단 사이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탄생한 연합정권일 가능성이 높다. 교재의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듯이, 왕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이 그대로 존속한 점, 위만의 뒤를 이은 왕들의 이름이 중국식 이름과 다른 이름인 점, 위만의 신료들 중 대부분 역시 중국식과 다른 이름, 곧 고조선식 이름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이 그 좋은 예다. 특히 이런 점은 이주민의 후예들이 토착민 사회와 곧 융화되어 버렸음을 강하게 시사해준다. 요컨대, 고조선이나 위만조선이나 모두 건국 자체는 이주민 집단의 주도하에 토착민들의 일부 지지를 받아 형성되었으며, 머지않아 이주민 집단은 토착민 사회에 대체로 섞여들어가 융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해석일 것이다.

수업 시 가능한 추가 설명(1) 단군신화 말미에 나오는 내용, 즉 단군이 1,908년을 살았다는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혹 단군이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이 지배하는 어떤 정치 질서가 1908년 동안 존속했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단군’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고조선 사회를 통치하던 최고지배자의 호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단군신화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므로,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이미 알고 계신 관련 이야기와 다양한 해석들을 자유롭게 제시하여 학생들의 토론을 유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3) 위만의 출처에 대해서는 현재 연나라 사람이라는 설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중국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조선으로 망명해 올 때 조선식

상투를 틀고 조선 복식을 입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변장일 수도 있으나,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름이 중국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나라 사람으로 단정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미국 한인 2세들의 이름은 유럽식일지라도, 그들의 부모가 한국출신이듯이, 요서지역이 본래 고조선 땅이었다가 후에 연나라에게 빼앗겼다는 추론이 사실이라면, 요서지역에는 수많은 조선계 연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고, 위만은 그 중 한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 내부의 혼란을 피해 그가 굳이 조선으로 망명하려 한 이유도 그의 출신 배경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위만이 연나라사람이냐 또는 조선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점은 그가 고조선의 토착민이 아니라, 연나라로부터 망명해 들어온 이주민이라는 사실입니다.

토론 가능한 주제들 (1) 요서지역의 청동기 문명이 고조선 문명과 일치한다고 봅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봅니까? 아니라면, 왜 아니라고 봅니까? 어떤 틀에 박힌 답을 일방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자유로운 의견 발표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강한 기억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2) 신화는 다 픽션에 불과할까요? 건국신화에서 어떤 역사적 가능성을 유추해 낼 수는 없을까요? 단군신화 이외에 각자 알고 있는 신화를 아무 것이나 하나씩 소개하고 그 내용을 해석해 봅시다.

3. 고조선 이후 초기국가들의 형성

앞 단원에서 살폈듯이, 한민족의 구성원들은 선사시대(prehistoric period)까지 추적해 볼 수 있으며, 문헌자료에 따르면 고조선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현대 한국민족의 터전인 한반도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린 국가를 꼽는다면, 흔히 삼국으로 알려진 고구려, 백제, 신라일 것이다. 이 세 나라는 각기 한반도에 수도를 두고 서로 교류와 각축을 하며 발전하면서, 한국문명의 토대를 이루었다. 이 단원에서는 이런 삼국이 처음에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그 형성 과정을 살피되, 삼국이 모두 이주민과 토착민의 연합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건국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둘 것이다. 다른 말로,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예에서 이미 보았던 추세, 즉 북쪽으로부터 끊임없이 남하해 오는 이주민과 한반도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토착민이 뒤섞이며 나라를 세우는 추세가 계속 이어져 삼국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영어판 본문에서는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등 네 나라를 다루었다. 이 중 부여의 경우에는 건국과정이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삼국 중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의 건국자가 부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단적인 예로, 한국의 전승기록에 따르면, 고구려의 건국자는 본래 부여의 왕자였으며, 백제의 건국자는 성(姓, family name)이 ‘부여’였다. 이 점은 고구려와 백제가 부여민족의 한 갈래였음을 강하게 시사해준다. 고구려의 건국을 설명하는 한국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주몽이다. 주몽은 부여의 왕자였지만, 어머니는 왕비가 아니었다. 주몽은 성장하면서 배다른 형제들의 견제를 받아, 결국은 무리를 이끌고 부여를 떠나 남하하였다. 지금의 압록강 중류 바로 북쪽지대에 이르러 정착하고 나라를 세워 고구려라 하였다. 초기의 고구려는 5부족이 연합한 국가였는데, 왕을 배출한 부족은 아마도 주몽을 따라 이주해 온 집단이고, 나머지 네 부족은 토착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추론을 실제로 뒷받침해주는 흥미로운 방증들이 있다.

영어판 본문에서 설명하였듯이,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기 전에 이미 그 지역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던 점, 주몽이 아버지의 성을 버리고 ‘고’라는 새 성을 취한 점, 특히 그 새로운 성을 ‘고구려’의 첫 음절인 ‘고’에서 따온 점 등은 주몽이 이끌던 이주민 집단이 토착민들을 짓밟고 나라를 세웠다가보다는 오히려 토착민들과의 연합을 통해 나라를 세웠음을 시사해준다. 더욱이,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지 100년도 안 되어 다른 부족에서 왕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는 왕을 배출하던 부족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주몽의 후손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아마도 그들은 100년도 채 안 되어 토착민사회에 융화되었을 것이다. 즉 고구려는 부여에서 남하해온 이주민 집단 주도하에 건국되었지만, 그 이주민 집단은 머지않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토착민집단에 섞여버린 것이다. 이점은 앞서 다룬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경우와 놀랄 만큼 비슷하여 매우 흥미롭다. 더 재미있는 것은 백제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한국 기록에 따르면, 백제를 세운 이는 온조이며, 그는 본래 주몽의 아들이었다(친아들인지는 알 수 없다). 주몽은 예전에 부여를 떠날 때 젊은 아내와 갓난 아들을 부여에 두고 떠났는데, 아들의 이름은 ‘유리’였다. 유리는 자라나서 청년이 되자, 아버지를 찾아 고구려로 왔다. 이에 주몽은 유리를 후계자로 삼으려 하였고, 이에 따라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들 사이에 알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온조는 무리를 이끌고 고구려를 떠나 더 남쪽으로 이주하였다. 지금의 한강유역 서울 근처에 자리를 잡고 나라를 세우니, 그것이 바로 백제였다.

백제 또한 이주민과 토착민이 연합하여 세운 나라로 보인다. 백제가 건국되기 전에 그 지역에는 이미 ‘십제’ (十濟)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는데, ‘열 개의 나루’ (ten ferries)라는 뜻이다. 그런데 백제(百濟)는 ‘백 개의 나루’ (one hundred ferries)라는 뜻이다. 이 점은 온조가 이끄는 이주민들이 십제라는 나라를 제압하고 새 나라를 세웠으나, 그 과정이 완전한 정복이라기보다는 상당한 정도의 타협이나 협상에 의한 것임을 시사해 준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백제 왕족의 성이 ‘부여’라는 점이다.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었으므로 그의 성은 ‘고’ 여야 한다. 그런데 온조는 백제를 세운 후에 자기 성을 버리고 ‘부여’라는 새 성을 취하였다. 이점은 온조가 자신의 기원을 고구려가 아닌 부여에 두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확실치**는 않지만, 백제의 경우에도 이후 왕을 배출하는 부족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다. 이런 점들은 모두 백제를 세운 이주민 집단도 곧 그 지역의 토착민 사회와 융합하였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신라의 경우에는 건국자가 어느 특정 지역에서 왔다고 언급하는 기록이 없다. 그래도 어디선가 이주해온 자들이 토착민과의 연합을 통해 세운 나라임을 알려주는 증거는 많다. 건국자인 혁거세가 말이 품은 알에서 태어난 점, 태어나자마자 6부족 토착민들의 보호를 받아 성장한 점, 6부족이 연합하여 나라를 세운 점, 왕위 계승이 전체 부족회의에서 결정된 점, 왕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점 등은 모두 이런 추론을 뒷받침해준다. 그런데 한반도 초기국가들의 건국과정에서 보이는 이런 특성은 일본열도에서 건국된 국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매우 흥미롭다. 일본열도 최초의 통합세력으로 알려진 야마토(大和 Yamato) 조정의 건국신화 내용이 고조선을 세운 단군의 이야기와 그 맥락이 거의 같은 점, 야마토의 건국시조인 짐무(神武 Jimmu)도 그 지역의 토착민이 아니라 이주민이었던 점 등이 좋은 예다. 요컨대 동아시아의 초기국가들을 공부할 때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음 단원에서는 바로 이런 시각에서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관계를 살필 것이다.

수업 시 가능한 추가 설명 (1) 영어판 본문에서는 개괄적으로만 소개하였으므로,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신화 및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가야의 건국신화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을 것입니다. 각 건국신화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요즘 역사학계에서는 일국의 범주를 벗어나 국경을 초월하는 어느 지역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즈음이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역사를 공부할 때에도 한국사에 국한된 시각을 지양하고, 현재의 국가와 민족 개념을 초월하여 보다 큰 그림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파악하는 자세와 시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복습용 토론 주제들 (1) 교재의 본문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에 얽힌 이야기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들의 공통점을 강조하였는데, 그 결과로 얻어낸 결론을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아울러 그 이야기들 속에는 공통점만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2) 혹시 얼마 전에 한국 TV에서 방영된 드라마 ‘주몽’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보았다면, 그때 주몽과 고구려에 대해 받은 인상과 지금 이 수업을 통해 얻은 지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마도 한 학급에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주몽’을 보았을 것이므로, 그 학생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아무도 없다면, 선생님께서 간단히 드라마에 대해 설명해주고 논의를 이끌어올 좋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주몽을 시청한 적이 없다면, 이 문제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4.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

이 단원에서는 앞서 살핀 초기국가들의 형성 과정을 한반도의 범주를 넘어 일본열도에까지 확대하여 동아시아라는 거시적 시각으로 살피고자 한다. 현재와 같은 국가 개념이 없었던 옛날에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왕래에 별다른 ‘국가적’ 제재가 없었다. 누구나 자기 필요에 따라 반도에서 섬으로, 또는 섬에서 반도로 이주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옛날을 일률적으로 보는 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바른 태도라 할 수 없다. 이 단원의 제목을 ‘한국과 일본’ 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한반도와 일본열도’ 라는 지리적 명칭으로 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한반도’ (Korean Peninsula)나 일본열도(Japanese Archipelago)라는 이름에도 근대적 시각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민족이나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낫다. 요컨대 이 단원의 목적은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과 일본열도에 살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살피려는 것이지, “한국인과 일본인”의 관계를 살피려는 것이 아님을 먼저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고대(ancient times) 한반도와 일본열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대개 근대적 민족주의 또는 식민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결과물이다. 실제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자기 나라가 상대방보다 역사적으로 더 우월하였음을 강변하기 위해 무리하게 만들어 낸 설명이 상당수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국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의 어용학자들이 내세운 이론 중에,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것이 있다. 요점을 말하면, 삼국시대(4세기~7세기) 중 약 200년 동안 일본열도의 야마토(大和) 조정이 한반도 남부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설이다. 이 설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역사 지식이 필요한데, 현재는 한국과 일본을 막론하고 국내외 학계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종말을 고한 이론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일본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은 본래 한국인이었다고 주장하는 한국인들도 많다. 일본의 모든 고대 문명이 한반도에서 건너갔음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나라를 세웠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 또한 역사적 설득력이 약하며, 일체에 의해 식민지 지배를 당한 과거의 아픈 기억을 씻기 위한 일종의 카타르시스에 의한 왜곡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면에, 한 일본 학자가 제기한 ‘기마민족설’은 비록 허점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기반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이 기마민족설(horserider theory)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영어판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듯이, 기마민족설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패망한 일본이 미국의 군사 통치(1945~1953)를 받는 상황에서 에가미 나미오라는 고고학자가 일본에서 발표하였다. 그 골자는 일본 최초의 국가 야마토를 세운 세력은 본래 일본열도 토착민들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섬으로 이주해 온 기마민족이라는 것이다. 이런 설명의 주요 근거는 서부 일본열도에서 발견되는 대형 고분들에서 갑자기 승마에 필요한 물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본래 일본에 없던 것이라는 점이다. 황실의 기원에 있어서 한반도와와의 다양한 인연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려던 일본 황실의 당시 쇼와 천황(히로히토)은 에가미 교수를 접견할 때 그의 설명을 관심 깊게 들었지만, 그의 학설은 일본학계로부터는 큰 비판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 설명이 정말 사실이라면, 일본의 역사는 처음부터 이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시작되었고 당시 현재에도 미국에게 정복되어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일본

역사의 처음과 끝이 모두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다는 설정이 되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이 설명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구미학계에도 소개되어 일부 서양인 학자들도 이 논쟁에 뛰어들었다. 그 중 일부는 기마민족설을 더욱 보강하여, 그들이 부여사람이라는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기마민족이 일본열도를 정복하였다는 설명을 전면 부정하였다. 양측의 논점은 이미 영어판 본문과 [Table]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 다시 긴 설명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도 쌍방이 모두 인정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야마토 정권이 성립한 시기(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중반 무렵)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물이 일본열도로 대거 유입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 야마토는 100% 토착민 문명을 기반으로 탄생하지 않았으며,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새로 들어온 문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관계의 실체와 정도의 차이에 대한 설명에서, 기마민족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외래적인 성격을 강조하는데 반해, 기마민족설을 부정하는 학자들은 토착적 성격을 더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야마토는 토착문화와 외래문화 둘 모두를 기반으로 건국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까? 즉 건국자 ‘짐무 천황’으로 상징되는 이주민 집단과 본래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토착민 집단의 연합을 통해 탄생한 나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방증)는 많다. (a) 야마토 정권 성립 시기에 외래문화가 많이 유입되었으나 토착문화도 융성했던 점, (b) 야마토 건국신화의 내용이 단군신화와 유사한 점, (c) 야마토의 한문표기(大和) 뜻이 ‘큰 화합(great harmony)’이라는 점, (d) 짐무 이하 야마토 국왕들의 왕권이 미약했다는 점, (e) 야마토 성립시기에 마침 한반도에서 발생한 큰 정치적 격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제와 가야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일본열도로 이주한 점 등은 야마토의 형성과 관련하여 많은 점을 시사해준다. 결국, 같은 시기(4세기~7세기)에 한반도에는 삼국이 있었고, 일본열도에는 통합세력으로 성장과정의 야마토가 있었다. 이 국가들의 성격은 서로 비슷하였다. 또한 이 네 나라는 상황에 따라 서로 대립과 왕래를 반복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미시적인 시각으로 고대를 보면 ‘한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일본사’는 야마토 시대가 된다. 그렇지만 동아시아라는 보다 큰 틀로 거시적으로 보면, 이 시기에는 크게 네 개의 주목할 만한 세력이 각축을 이루며, 그 외에 작은 나라들도 많았던 시대였다. 그들은 서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와 전쟁을 반복하면서 발전하였다. ‘한국’이나 ‘일본’이라는 지금과 같은 민족 개념은 전혀 없었다.

수업 시 가능한 추가 설명(1) 기마민족설과 가장 극단적인 대칭에 있는 임나일본부설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미국에서 자라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굳이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 임나일본부설이 20세기 전반에 일제의 한반도 침탈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은 말해주고, 또한 20세기 초 일본 식민사관의 산물인 이러한 시각을 반영한 영문 서적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당시 중국과 한국의 기록은 ‘야마토’ 대신 ‘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야마토’가 스스로 사용한 이름인 데 비해, ‘왜’는 종족의 호칭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당시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에 있던 중국의 기록은 동방의 세력들을 주로 고구려, 백제, 신라, 왜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점은 야마토라는 나라의 국력과 관련하여 시사해주는 바가 큰데, 지금의 오사카 지역에 위치하였던 야마토가 당시에 과연 그 힘을 한반도와

더 인접한 지금의 큐슈지역까지 확실하게 뻗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회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당시 일본열도도 어느 한 나라에 의해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몇 개의 구심점으로(적어도 두 개 이상) 나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의 식민주의 학자들은 야마토가 완전한 통일국가요, 중앙집권 국가였다고 강변하지만, 보다 많은 양심적인 일본 학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몇 개의 정치체로 나뉘어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동아시아 전체 구도와도 잘 부합한다.

토론 가능한 주제들(1) 기마민족설이란 무엇이며, 그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2) 한국 역사 시간에 굳이 일본의 야마토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 골품제와 한국의 귀족사회

이 단원의 주제는 옛 한국사회의 특성을 지배계급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정한 주제가 바로 신라사회의 골품제(bone rank system)다. 삼국 중에서 굳이 신라를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 한국문명의 토대를 이룬 나라가 바로 한반도를 최초로 통일한 신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신라가 무조건 삼국을 대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의 문명은 이들 나라의 멸망과 함께 상당 부분이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다. 고구려와 백제의 지배층 대부분은 중국으로 끌려가거나 일본으로 망명함으로써 한반도라는 역사무대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일부 남은 귀족들이 신라에 속하였으나, 그들은 신라사회에 흡수 또는 동화되었던 것 같다. 따라서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한 7세기 후반 이래 한반도의 문명은 ‘고구려와 백제문화 일부를 흡수한 신라 문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신라는 이후 고려(918~1392)로 계승되었고, 고려는 조선(1392~1910)으로 바뀌었는데, 신라가 고려로 바뀌는 시기에 약 40년간 한반도가 다시 분열된 것을 제외하면, 현재 한반도의 상당부분은 신라에 의해 처음으로 통일된(660~676) 이후 한반도가 현재의 남북한으로 분단되는 1948년까지 무려 1,300년 이상 단일한 정권이 지배해 왔었다. 그 결과, 늦어도 조선시대에 이르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문화적 동질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한국문명의 기원과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신라의 모델을 우선적으로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

‘골품’은 ‘뼈의 등급’이라는 뜻인데, 신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뼈’의 등급이 매겨진다는 의미다. 즉 세습되는 신분을 말한다. 신라의 신분에는 크게 골품과 두품(頭品, head rank, 머리의 등급) 두 종류가 있었는데, 신분제로서의 골품제는 넓은 의미로 두품까지 포함한다.

골품에는 성골(聖骨, holy bone)과 진골(眞骨, true bone)이 있는데 모두 왕족의 일원, 곧 김·박·석 중의 어느 한 성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속하며, 대개 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골품의 주축을 이루었다. 특히 성골은 왕의 직계 가족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또한 성골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성골이어야 했으므로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성골이 아니면, 자식은 성골 신분을 받지 못함), 매우 배타적이고, 엄격하게 규정된 집단이었다. 그 결과 성골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7세기 중반에는 두 여성 군주를 끝으로 성골은 멸종되어버렸다. 이후로는 진골에서 힘 있는 자가 왕위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성골과 관련하여 우리는 옛 한국사회의 결혼 풍습 한 가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근친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점이다. 특히 지배층일수록 근친혼이 심하여, 형제자매 사이에도 혼인이 비일비재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신라사회 지배층이 매우 배타적인 집단을 이루고 있었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결혼 및 가족 풍습은 한국의 전통이 되어, 이후 고려가 망할 때(1392)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가부장적인 유교의 영향으로 근친혼이 금지되지만, 유교의 ‘근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보니 또 다른 폐해를 낳기도 하였다. 한국의 혼인 풍습에 대해서는 다른 단원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한편, 두품에는 위로부터 6두품, 5두품, 4두품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6두품 귀족들은 골품제도 자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제도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상당한 문화적 소양에 불구하고 정치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라의 정치조직에는 모두 17개의 관등(rank)이 있었는데, 더

높은 자리(post)에 앉기 위해서는 더 높은 관등을 지녀야 했고, 더 높은 관등을 가지려면 더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야 했다. 예를 들어, 진골 출신 귀족은 관등 진급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최고 직위(post)에 임명될 수 있었다. 그러나 6두품 출신 귀족은 17 관등 중에서 위로부터 6번째 관등까지만 진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장관(minister) 자리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관등이 적어도 5번째 이상이어야 했다. 따라서 6두품 귀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장관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골품제의 위력이었다. 현재 미국 군대의 계급(rank)과 직위(post, position)에 있어서 승진이 자신이 태어난 집안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이런 제약으로 인해 두품 귀족들은 정치보다는 학문 쪽으로 많이 진출하였는데,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는 없었다. 높은 학식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차별받는 것에 불만을 품은 많은 두품 귀족들은 중국(당시에는 당나라)으로 유학했다. 왜냐하면 당시 중국에서는 신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과거시험만 붙으면 관리로 임용되었고, 승진도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신라 출신 두품 귀족들은 이런 방식으로 당나라 조정에서 관료로 활동하였다. 오늘 날 경주최씨가 시조로 받드는 최치원과 같은 사람들은 후에 신라로 돌아와 골품제도 폐지 등 일련의 개혁을 외쳤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골품 귀족들의 탄압에 밀려 오히려 대부분 정계를 떠나기도 하였다. 신라에서 개혁의 가능성이 없다고 믿은 두품 귀족들은 결국 신라에 저항하는 여러 움직임에 직접 간접으로 연루되어, 결과적으로 신라를 무너뜨리고 고려를 세우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지배층(귀족층)이 얼마나 강력하고 장기적으로 존속하였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한 마디로 말하면, 한국의 귀족층은 신라와 고려 초기에 한반도에 튼튼한 뿌리를 내린 이후 한 번도 큰 도전을 받지 않고 조선이 망할 때까지 한반도를 독점적으로 지배하였다. 다른 말로, 지배층의 변동이 크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점은 한국사회의 가계 족보가 조선시대를 넘어 고려시대, 심지어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점과도 잘 부합한다. 한 왕조가 붕괴되면, 그 왕조에서 특권을 누리던 지배귀족층이 몰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비교적 분명하였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중국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왕조 교체가 내부의 대규모 반란이나 외부 침입의 결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내부적이거나 외부적이거나 대개 전쟁이라는 과정을 거쳐 왕조가 바뀌었으므로, 전쟁의 승패가 드러날 즈음에는 패한 쪽의 유력가문들이 몰락하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다. 중국 내부에서 교체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개는 지배층 내에서 왕조가 바뀌기보다는 민란의 지도자가 기존의 왕조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전쟁을 통한 교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 등장한 왕조의 지배층에는 다양한 계층에서 온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였다.

이와 대조적인 한국의 경우에는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정이 전쟁이 아니라 협상에 의해 이루어졌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과정도 비교적 평화적이었다. 그 결과, 왕조는 비록 바뀌었지만 지배층 내부의 부침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한국의 지배 귀족층은 왕조 교체라는 위기에 임하여 왕조를 위해 끝까지 싸우다가 몰락하기보다는 새로운 실력자에게 왕위를 내어줌으로써(즉 왕실만 바꿈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였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이주민과 토착민 사이의 연합에 의해 초기국가들이 탄생하였던 흐름과 유사한 면이 있어 매우 흥미롭다. 이러한 한국적 특성은 조선이 일본에게 망한 후, 또한 일본이 물러가고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한 후에도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해방(1945) 이후 대한민국의 정권교체를 보아도 이런 특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수업 시 가능한 추가 설명(1) 골품을 설명하면,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연상되는지,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거냐고 묻습니다. 이럴 경우, 카스트제도와 일부나마 유사한 면이 적지 않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카스트제는 특히 근세(early modern period)에 들어오면 자신의 공적에 따라 신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즉 카스트제와 골품제는 둘 다 외형상으로는 엄격한 신분제를 고수했지만 국가의 필요상 높은 지위가 부여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분제도는 전근대(premodern) 세계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었음을 아울러 곁들이시면 좋겠습니다.

(2) 한국의 지배층이 1,000년이 넘도록 그 속성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설명은 역사적으로는 맞지만, 그럼에도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한국 역사에서는 다이내믹한 역사 발전이 없었다는 말이나?”는 질문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흑백논리식 발상은 현대 역사학에서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오히려 절묘한 시스템으로써 지배층의 안정을, 더 나아가 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 면에서 본다면, 한국사회의 운영원리는 나름대로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는 역사를 지나치게 단선적·감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복합적·이성적으로 보는 안목을 청소년 학생들에게 일깨워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론 가능한 주제들(1) 미국 역사에도 골품제도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차별이 완전히 없어졌나요? 만약 당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고, 피부 색깔도 스스로 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성별, 가문, 계층, 또는 인종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에 대한 당신의 답과 관련하여, 그렇다면 장차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가, 미국사회의 정치나 사회제도에 대해 어떤 태도로 접근하겠습니까?

(2) 신분제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단점만 가지고 있나요? 서로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말해보고, 그것이 정말 장점이고, 단점인지 설명해 봅시다. 신분제도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라고 보는지요? 현재 신분제는 거의 사라졌지만, 성별, 계층, 인종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카테고리 묶어 차별하려고 할까요? 그런 비슷한 마음을 스스로 느꼈던 적은 없나요?

6. 고구려와 발해, 그리고 동북공정

한국의 고대문명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에도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앞에서 공부한 부여나 고구려 등의 국가들은 한국문명이 만주와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만주에서는 발해라는 새 국가가 탄생하여 200년 이상 만주 일대를 지배하였다. 발해는 고구려의 유민들이 세운 나라이므로, 후고구려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고구려와 깊은 연관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는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중국**은 이를 ‘동북공정’이라고 부른다. 이 장에서는 발해의 역사를 개관하고, 더 나아가 동북공정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왜 문제인지 알아볼 것이다.

발해는 고구려가 망한지 30년 만인 698년에 동만주에서 건국되었다. 건국하자마자 발해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거의 다 수복하고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서쪽으로는 당나라와 대립하여 당나라 군대와 교전을 하여 물리쳤으며, 남쪽으로는 신라와도 냉전 상태를 유지하였다. 영토를 개관하면, 북쪽으로는 현재의 흑룡강(Amur River)까지, 남쪽으로는 한반도 북부의 대동강까지, 동쪽으로는 지금의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을 넘어 오흐츠크(Okhotsk) 해 연안의 연해주 전역을, 서쪽으로는 요동의 일부를 아우르며 넓은 영토를 자랑하였다.

10세기에 들어 동아시아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주요 세력이던 당나라, 발해, 신라, 그리고 일본 모두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쇠락하였다. 발해는 몽고계인 거란의 공격으로 망하였는데, 이때 지배계층을 포함한 일부 유민이 남쪽으로 이주하여 당시 한반도에서 새롭게 등장한 고려(918~1392)로 망명하였다. 이때 고려의 왕인 태조 왕건은 그들을 받아들였다. 비록 발해가 망함으로써 만주 일대의 광활한 영토는 거란의 손으로 들어갔으나, 민족 차원에서는 비로소 한민족의 통일이 한반도를 무대로 이때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발해의 종족적 정체성(ethnic identity)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 특히 중국인 학자들은 발해를 세운 대조영을 통구스계인 말갈인으로 규정하고, 발해를 한국인의 국가가 아니라 말갈인의 국가로 본다. 그런데 그 말갈인이 후대에 여진인, 만주인 등을 거쳐 중국인으로 흡수되었으니 발해가 중국의 국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렇다면 대조영의 종족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말갈은 본래 동만주와 한반도 동북부에 살던 원주민으로서, 고구려를 구성한 여러 종족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렇지만 고구려의 멸망 후, 특히 고구려의 집권층이 당나라, 신라, 일본 등지로 흩어짐에 따라, 30년 뒤에 만주에서 등장한 발해에서 말갈인은 다수 종족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대조영의 출신 종족은 바로 이 둘 중 하나, 곧 고구려인이었거나 말갈인이었던 것이다. 발해에 관해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전해주는 기록으로는 당나라 멸망 후 중국에서 945년에 편찬한 □구당서□와 1060년에 편찬한 □신당서□를 들 수 있다. 그런데 □구당서□에서는 대조영을 ‘고(구)려인의 별종’ [으로 기록한 데 비하여, □신당서□에서는 대조영을 말갈인으로 기록함으로써 이후 두고두고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였다. 요컨대, 기록만으로는 대조영의 종족배경에 대하여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각종 기록에 보이는 발해인의 이름은 모두 380개 정도로, 그 가운데 대씨(발해 왕족의 성씨)가 약 30%, 고씨(고구려 왕족의 성씨)가 약 17%를 차지한다. 이들은 모두 발해의 최고 엘리트였다. 이런 사실은 발해가 고구려인과 말갈인이 연합하여 세운 국가임을 매우 강력하게 시사해 준다. 따라서 지배층의 종족

배경으로 볼 경우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은 부정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다. 발해는 건국 후에 일본에 국서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 거기에 나라 이름을 스스로 ‘ 후고(구)려’ 라고 표기하였다. 이는 발해인들 스스로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을 고구려인과 동일시하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된다.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인들도 발해인을 가리켜 고구려의 별종으로 인식하였다. 즉,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발해인과 외국인 모두 발해를 고구려의 후예로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에 중국(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현재 중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현재 중국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수 민족들의 독립운동을 짓누르고,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는 중국의 분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만주는 17세기 이전에는 한 번도 중원에서 흥기했거나 본거지를 둔 왕조의 땅으로 편입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현재 중국은 만주에서 명멸하였던 모든 국가를 중국사에 포함하고, 심지어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한 국가는 현재 자국 영토에 포함된 다른 민족의 역사를 자국 역사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왜곡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영토인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역사는 미국 역사에 포함된다. 또한 멕시코 전쟁(1847~1848) 이전의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역사를 미국에서 가르치며,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1848년 이전의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미국의 지방 정권 또는 미국에 의존한 지방세력들이었다고 왜곡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넓은 의미로 중국사에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서 한국사의 영역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역지이자, 날조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객관적인 사료분석을 토대로 한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꾀변이기 때문이다. 역사라는 것이 아무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학문적인 기초가 갖추어진 해석과 그렇지 않은 날조는 그 격(格)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현재 미국영토 원주민들인 인디언들의 역사를 현재 미국 역사에 포함시킬 수는 있어도, 백인들이 유럽에서 건너오기도 전의 그 인디언들의 역사를 처음부터 백인들 역사의 일부분인 것처럼 가르칠 수는 없으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수업 시 가능한 추가 설명(1) 대조영의 종족적 출신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학자도 명쾌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한국 책에서는 대개 대조영을 고구려인으로 못 박는 경향이 강한데, 사실은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조영이 말갈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답은 ‘모른다.’가 맞습니다. 따라서 대조영 한 사람을 가지고 발해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방법은 지양해야 합니다. 세계사를 보더라도 어느 왕조의 창시자 자신의 종족 또는 문화적 배경이 그 왕조가 지배하는 사회를 구성하던 대다수 주민들의 배경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발해의 성격을 공부하려면, 대조영 개인의 혈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 발해의 헤게모니(hegemony)를 장악하였는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발해 인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발해인 스스로는 자신들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외국인들은 발해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등입니다. 이런 식으로 볼 때,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부정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3) 발해의 성격에 대한 논란의 배경에는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선 신라인들은 발해를 야만국가로 취급하여 상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신라의 뒤를 이은 고려는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고려 역사 내내 발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발해 멸망 후 약 100여년 뒤에 말갈의 후예인 여진인들이 만주에서 자기들 나라를 세우고 중원으로 침입하여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들의 조상인 발해의 성격이 모호해집니다.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에서도 역시 만주를 야만인의 땅으로 간주하고, 발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이르러 한두 명의 학자들이 발해에 관심을 갖고 발해를 고구려의 후예로 보고 한국 역사에 포함시키지만, 그 때뿐이고,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여진의 후예인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때(17~19세기) 만주 지역을 자기들 조상이 살던 땅이라 하여 신성시하고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이 만주가 중국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4)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말갈인의 후예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갈(10세기 이전) → 여진(10세기~17세기) → 만주(17세기~20세기 초)* 말갈은 고구려 및 발해의 구성원을 이룸.* 여진은 만주에서 금나라(1115~1234)를 세우고 중국의 북부(중원)를 차지함.* 여진은 다시 만주에서 후금(1616~1636)을 세움.* 여진은 후에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 청(Qing, 1636~1911)으로 바꾸면서 그 구성원들을 통칭하여 만주족으로 부르도록 함. 이후 청나라는 중국 전역을 정복하고 대제국이 됨. 따라서 청나라 황제들은 만주를 자기 조상들의 고향으로 생각하여 만주지역을 신성시 함.

복습용 토론 주제들(1) 캘리포니아의 역사를 미국 역사와 관련하여 설명해 봅시다. 본래 캘리포니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멕시코 전쟁은 왜 일어났습니까? 현재 미국 학교에서는 캘리포니아 원주민인 인디언들과 멕시코 전쟁 이전의 캘리포니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2)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요즘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인지 생각하고 토론해 봅시다. 역사를 마음대로 지어내는 일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일기를 써 본 적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이 쓴 일기는 100% 사실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 7장: 고려와 동아시아, 10~14세기

고려왕조(918~1392)가 존속하던 시기의 동아시아는 북쪽에서 끊임없이 내려오는 유목민족들로 인해 변동을 많이 겪었다. 11세기에는 거란(Khitans)이 흥기하여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주도하였으며, 12세기에는 여진(Jurchens)이 흥기하여 동아시아 전체를 호령하였다. 13세기에는 몽골(Mongols)이 흥기하여 전례가 없는 규모의 대제국을 형성하였는데, 그들은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멀리 동유럽까지 정복하였다. 한반도에 있던 고려는 몽골에 40년 가까이 저항하다가 끝내 항복하였지만, 명목상으로나마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대륙에 있던 송나라(960~1279)는 끝내 몽골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이렇듯 중세 동아시아 무대에서는 제국이 자주 바뀌었고, 그때마다 큰 전쟁들이 일어났다.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은 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운 땅을 찾아 수시로 남쪽으로 침입하곤 하였다. 그들의 주목표는 중국 평원(중원)이었지만, 중국을 침입할 경우에 자기들의 ‘배후’인 한국(한반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한반도를 평정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사실 경제적인 면으로만 본다면, 그들에게 한반도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힘든 전쟁을 통해 한반도를 정복할지라도, 전쟁으로 인해 입을 손실에 비해 한반도에서 얻을 것이 월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리적으로 볼 때, 중국 방면으로 군사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먼저 평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만주에서 흥기한 거란이나 여진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바로 그들의 배후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였다. 거란과 여진, 그리고 몽골이 연이어 고려에 침입하거나 압력을 가해 온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 기인한 결과였다.

고려가 이들을 상대로 치른 전쟁들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이미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고려가 이들 유목민들에게 정복되지 않고 왕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즉 당시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국제관계였던 책봉·조공제도에 중점을 두어 간단히 살펴보자.

당시 동아시아 유교문명권에서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중국 대륙의 제국을 정점으로 하여 수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대개 중원(황하유역을 중심으로 한 북중국 지역)을 장악한 제국의 황제는 천자를 자처하고, 외교 의전상 주변의 여러 왕들을 책봉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 주변의 왕들은 일정한 품목의 조공을 정기적으로 황제에게 바침으로써 황제에 대한 자신들의 열등한 지위를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보기에 따라서는, 이러한 관계가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상 유지된 종주국과 속국의 관계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에서 행해지던 국제 관계는 유럽의 경우와는 사뭇 달랐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는 대개 번국(藩國) 또는 속국(屬國)으로 불렸는데, 번국은 말 그대로 종주국(책봉국)의 주변에 위치하여 그 울타리 역할을 하는 나라라는 뜻이고, 속국의 문자적 의미는 종주국에 복속해 있는 나라라는 뜻이다. 한편, 번국은 영어로는 tributary state(조공국)로 의역이 되며, 속국은 말 그대로 dependent state (dependency), 또는 vassal state (vassal-dom)등으로 번역이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구분 없이 대체로 tributary state로 일관되게 번역하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동아시아의 속국의 성격을 유럽의 vassal state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경우,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유럽의 vassal state의 경우, 종주국(sovvereign state)은 vassal state에 수시로 간섭하였다. 이런 간섭은 대개

정치적·군사적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속국으로부터는 물질, 인적 자원을 두루 취해갔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속국’의 경우, 책봉국의 속국에 대한 내정간섭은 훨씬 미약했다. 조공을 받는 것도 책봉에 대한 답례의 성격이 강하였고, 경제적 의미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책봉 자체만 보아도,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동아시아의 책봉국(중주국)은 조공국(번국, 속국)의 왕위계승에 형식적으로만 관여하였다. 요컨대, 유럽의 중주국·속국 관계가 실제로 주종관계였던 데에 비하여 동아시아의 책봉·조공 관계는 외교적 의례(儀禮)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였다.

이런 이유로, 예전에는 서양학자들이 고려나 조선을 중국에 기반을 둔 왕조의 vassal state로 보기도 하였지만, 이제 그렇게 보는 학자들은 더 이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어판 본문에서 설명한 고려와 거란제국의 관계, 고려와 여진제국의 관계, 고려와 몽골제국의 관계는 이러한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 중에서 몽골과의 관계는 심각한 내정간섭으로 인해 동아시아적인 책봉·조공 관계보다는 유럽식 sovereign·vassal 관계에 좀 더 가까웠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워낙 강대한 제국의 옆에 위치하였던 한국의 왕조들은 대개 중국의 제국들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을 유지하였다.

수업 시 가능한 추가 설명

(1) 영어 원문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주로 고려·거란, 고려·여진, 고려·몽골 사이의 전쟁과 알력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려왕조 500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전쟁보다는 평화적인 책봉·조공 관계가 고려 외교정책의 주종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관계는 이후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토론 가능한 주제들

(1) 유럽 역사에서 중주국(sovereign state)과 속국(vassal state) 관계의 예를 하나 찾고, 그 관계가 실제로 어떠하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또한 그 관계가 고려·거란, 고려·여진, 고려·몽골 관계와는 어떤 면이 비슷하고 어떤 면이 다른지 비교해 봅시다.

(2) 1945년 이후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거의 대부분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만약 학생들도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본다면, 그들이 그렇게 보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가며 이야기 해 봅시다.

제 8장: 한국의 불교

불교는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4세기 무렵에 중국을 통해 고구려와 백제에 들어온 이후 국가의 종교로 크게 융성하였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도 불교국가였으며, 그 뒤를 이룬 고려도 불교국가였다. 따라서 15세기에 유교국가인 조선왕조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불교는 거의 1000년 동안 한국문명의 정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양의 기독교가 초기에는 로마제국으로부터 심하게 탄압받았던 것과는 달리, 한국의 불교는 처음부터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번창하였다. 이는 곧 한국의 불교는 처음부터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발전하였음을 뜻한다. 실제로, 신라 말기에 새롭게 유행한 선종(禪宗)은 기존의 교종(敎宗)과 교리 문제로 대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라의 정치적 권위에 도전하여 새 왕조를 열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조선왕조의 등장으로 불교가 유교에 밀리게 된 배경에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 역사에서 불교 종파들은 서로 어떤 교리상의 차이를 보였으며, 정치 상황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었을까? 이번 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고대 시기에는 주로 교종 계열의 종파들이 유행하였다. 교종이란 불교의 최종 목표인 열반에 들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강조하는 종파다. 그러다 보니, 경전에 대한 지식과 해석에 있어서 특정한 계보에 의하여 형성된 정통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 종파는 주로 왕실의 적극적인 지지로 성립하였는데, 왕실에서 교종을 강조한 것은 교종이 강조하는 권위체계를 정치에서의 권위체계와 동일시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라사회에서 교종 사원들은 대개 왕실과 중앙정부가 있는 경주를 중심으로 건립되었다. 지방에 세우더라도, 주로 큰 도회지를 끼고 세움으로써, 기존의 권위와 밀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신라 말기에 정치적으로 혼란해지면서 새로운 불교 종파가 등장하여 교종과 대립하기 시작하였으니, 곧 선종이었다. 선종은 교종과는 달리 수련의 방법으로 경전 학습보다는 참선(깨달음)을 강조하는 종파였다. 다른 말로, 아무리 경전에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정통 해석을 따를지라도 본인 스스로 진리를 깨닫지 않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교리였다. 이렇듯 선종이 기존의 불교 권위를 무조건 인정하고 따르기보다는 스스로의 깨달음을 강조하다 보니, 선종은 기존 권위에 매이지 않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띄게 되었다.

선종의 이러한 성향은 당시 신라의 중앙 권위에 도전하고 있던 수많은 지방 호족들에게 중앙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실제로 신라 말기에 세워진 거의 모든 선종 사원들은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곧 지금의 전라도·충청도·강원도·경기도·황해도 일대의 산중에 그 근거를 둠으로써, 그 지역에서 독립적 지위를 누리던 호족 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신라는 결국 이런 호족 세력에 의해 몰락하였고, 그 뒤를 이은 고려왕조는 바로 이런 호족 세력 가운데 한 명인 왕건(847-918)에 의해 창건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 건국 당시에는 선종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정치무대에서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기 마련이다. 기존의 어떤 권위에 도전할 때에는 선종이 좋았으나, 이제 새로운 권위와 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강화하려 할 때에는 아무래도 선종보다는 교종이 좋았다. 실제로 고려전기에는 교종이 다시 대두하였고, 왕실에서는 교종과 선종을 한데 묶어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 결과로, 천태종이라는 새 종파가 등장하였는데, 이를 확립한

자는 의천이라는 승려였다. 그렇다면 천태종은 어떤 특성을 지닌 종파일까?

천태종은 명목상으로는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즉 교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확인되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교리였다. 그러나 사실상 교종에 가까웠다. 우선 의천은 고려의 왕자 출신이었고, 천태종을 적극 지지한 주체는 바로 고려 왕실이었다. 천태종 사원들도 거의 모두 고려의 서울(개성) 근처에 밀집해 있었다. 천태종의 커리큘럼만 보아도 교종 관련 서적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요컨대 선종의 사상적 도움을 받아 출범한 고려왕조였지만, 이미 신라를 무너뜨리고 새 질서를 구축한 후에는 아무래도 교종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천태종을 장려하였지만, 그 속성은 사실상 교종에 가까웠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12세기 후반에 무신들이 집권하면서 다시 바뀌었다. 무력으로 권력을 잡고 수많은 문신들을 제거한 무신들은 바로 그 문신들과 연결되어 있던 교종 계열의 사원들을 탄압하였다. 이로 인해 무력 충돌이 몇 차례 있을 정도로, 무신정권과 교종은 사이가 안 좋았다. 반면에, 무신정권은 선종의 각 종파를 통합한 새로운 종파인 조계종을 지지하였다. 단, 정치에 깊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지하였다. 다시 활성화된 선종도 표면적으로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즉 스스로의 깨달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한 주관적인 깨달음은 객관적인 경전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교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대두한 조계종은 커리큘럼이 대부분 선종 관련 서적으로 구성되는 등, 선종에 크게 치우쳐 있었다.

무신정권(1170~1270) 시대는 한국의 불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다. 왜냐하면 정치성을 덜 띤 선종에 기초한 조계종의 확산을 계기로, 불교가 정치와 분리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무신정권이 조계종을 지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계종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고려는 불교국가였으므로, 불교 사원과 승려들에게는 갖가지 특혜가 주어졌다. 승려는 국가적으로 정치적·경제적으로 우대받았는데, 특히 국가에서는 승려들을 관료로 채용하기 위한 특별 과거 제도(승과)를 둘 정도였다. 수많은 헌금과 왕실의 특별 하사 덕분에 불교 사원들은 엄청난 재물과 권력을 갖추었고, 그러는 과정에 허다한 부패상도 나타났다. 마치 중세 후기 및 근세의 가톨릭(천주교)교회의 모습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유학의 경세학을 신봉하여 그에 따라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지향한 신유학자(neo-Confucians)들이 주축이 되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자, 불교는 정치무대에서 완전히 힘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민간의 종교로는 여전히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며 조선왕조 500년을 지나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요즘에는 신자 숫자로만 본다면 기독교(개신교와 천주교를 통틀어서)에 밀리는 듯하지만, 불교는 여전히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 가운데 하나다.

수업 시 가능한 추가 설명

(1) 영어판 본문에 약속하였듯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교과는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경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교리 문제)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이를테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해탈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가?”와 같은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대개 정치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정치와 연결된 종교의 예를 유럽사에서도 찾아 이야기해 봅시다.

(2) 고려사회에서 불교 사원이 누렸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권과 중세 유럽에서 교회와 신부 계층이 누렸던 특권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면, 학생들의 이해가 빠를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결탁한 종교 권력에는 부패가 따르기 쉽다는 보편적 설명을 할 수 있어 유용할 것입니다.

토론 가능한 주제들

(1) 학생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을 텐데, 기독교인은 크게 구교도(천주교, Catholics)와 신교도(개신교, Protestants)로 나누어집니다. 둘 다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정치와 결탁할 때에는 둘 다 크게 부패하였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구교도들이 보였던 부패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보고, 현대사회에서 개신교도들이 보여주는 부패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보되, ‘종교와 사회’ 내지는 ‘종교와 정치’ 라는 큰 틀에서 건설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2) 대한민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이 말은 곧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 종교를 가리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처님’의 나라로 만들자는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봅시다. 또한 특정 종교 세력에게 국가 차원의 특혜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예를 들어,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종교 종사자들(목사, 승려, 신부 등)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종교 단체 소유 부동산도 대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미국의 법과 한국의 법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일까요?

제 9장: 한국 성씨의 기원

현재 모든 한국인은 성씨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성씨는 모두 300개 가까이 된다. 이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인구 대비 성씨의 수가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 특히 김(金)·이(李)·박(朴)·최(崔)·정(鄭, 丁) 등 다섯 성씨가 전체의 56%를 차지한다. 이들 성씨들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김씨는 전체 한국인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한국인은 성씨 외에도 본관이라는 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본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없는 제도다. 한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성관(姓貫)이라는 말은 곧 성씨(姓氏)과 본관(本貫)을 합친 말이다. 그렇다면 본관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언제 왜 생겨났을까? 또한 한국사회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관제도는 한국의 가족제도와 어떻게 관련되었을까? 이번 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검토한다.

본관은 반드시 성씨의 앞에 놓이며, 그 성씨의 조상들이 한때 살았거나 기반을 닦았던 지역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후손 자신이 비록 지금은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본관을 통해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해 김씨’의 경우라면, 성은 김씨이고 본관은 김해가 된다. 또한 자기 조상들이 한때 김해 지역에서 기반을 잡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밀양 박씨’의 경우에도, 성은 박씨고, 그 조상들이 한때 밀양 지역에서 기반을 잡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고대의 한국 사회에서는 성씨만 있었는데, 그나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질 수 없었다. 성씨는 정치적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으므로, 대개 왕족이나 최고 귀족들이나 가질 수 있었다. 신라의 경우, 대표적인 성씨로는 왕족인 김씨, 박씨를 비롯하여, 최씨 등 몇 개의 성씨밖에 없었다. 그런데 신라가 쇠락하고 고려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으니, 바로 신라의 왕족과 일부 귀족이 몰락하고, 고려의 왕족과 귀족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성씨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신라의 최고 왕족이었던 김씨들은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각기 자신들이 새롭게 터전을 잡은 지역의 이름을 본래 성씨 앞에 붙임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간 김씨들과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강릉 김씨’는 그 좋은 예다.

새롭게 귀족으로 부상한 집안들도 고려의 왕으로부터 자신들이 본래 살던 지역을 본관으로 하사받음으로써 새로운 중앙 귀족층에 합류하였다. 새 고려왕의 입장에서, 그가 전국을 힘으로 정복한 결과로 통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방 호족들의 협력으로 통일이 가능하였으므로, 통일 후에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 주어야만 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들에게 본관을 하사함으로써 새로운 귀족층에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고려시대에 명성을 날린 성관들로는 새로운 왕족인 (개성) 왕씨 외에도 경주 김, 안산 김, 인주 이, 해주 최, 파평 윤씨 등을 꼽을 수 있다. 각 지역의 호족은 고려왕조의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면서 어느 특정 지역의 행정직을 세습하는 향리(鄕吏)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러한 향리 계층에서 과거제도 등을 통해 중앙정부로 진출하여 귀족이 되는 가제도 있었지만, 호족이건 향리건 상관없이 어느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성씨를 지칭하는 표기로서의 성관은 계속 유지되었다.

물론, 중앙 귀족, 지방 호족, 향리 등은 전체 인구의 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따라서 당시 한국인들 중에서 대부분은 본관은커녕 성씨조차 보유하지 못하였다. 세계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도 중세 이후

피지배층 사이에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일부는 지배층을 모방한 형식의 성관을 보유한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동시에 족보 위조도 성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하층민들 중에서는 성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다.

한국의 성관제도는 이웃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특이한 점이 있다. 중국에서는 본관제도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져버려, 사실상 성씨만 사용되고 있다. 중국에서 흔한 대표적인 성씨로는 리(Li, Lee, 한국식 발음은 이), 장(Zhang, Chang, 한국식 발음은 장), 주(Zhu, Chu, 한국식 발음은 주), 황(Huang, 한국식 발음은 황)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성씨만 쓰일 뿐이지 본관은 없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어느 종족집단 구성원이 타 지역으로 이주해 새로운 종족집단의 창시자가 되면 본관까지 바뀌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거의 영구지속적인 개념으로서의 본관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세기에 들어와 내전, 공산화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격동기를 거치면서, 애당초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문중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본관 개념이 희박해져 버린 측면도 있다. 동시에 중국의 성씨는 한국의 성씨와 비슷한 패턴도 보이는데, 이는 한국의 성씨제도가 중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성씨 자체가 대개 지역 이름을 가리키는 경우가 태반이다. 흔한 성씨인 야마모토(Yamamoto, 山本), 나카무라(Nakamura, 中村), 다나카(Tanaka, 田中), 혼다(Honda, 本田), 토요타(Toyota, 豊田), 기무라(Kimura, 木村) 등은 모두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그 형식으로 볼 때, 한국의 성씨보다는 본관에 더 가까운데, 그것을 성씨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세나 근세 당시 귀족이나 지배층의 후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본관 개념이 아예 없다. 이렇듯 성씨 하나만 놓고 보아도, 중국과 일본은 매우 다르며, 한국은 그 둘을 겸비하면서도 그 두 나라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문화의 특성은 이렇게 성씨를 통해서도 측정할 수 있다.

수업 시 가능한 추가 설명

(1) 영어판 본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성관제도와 관련하여 자기 개인보다는 자기가 속한 가문을 더 중시하는 동아시아 문명권의 한 특성이 지금도 이름을 쓰는 방법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하면, 학생들이 흥미롭게 듣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자기 이름을 쓰거나 남들에게 소개할 때 ‘김상훈’이라고 하여, 성씨를(집안을) 자기 자신보다 강조합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상훈 김’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집안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강조합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아래의 토론 주제(3)번을 토론해 보면,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2) 미국인들도 자기 조상들을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기억하는 방식은 한국인과 좀 다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수백 년 전의 조상이 왕이었거나 아니면 어떤 벼슬을 했다, 또는 어느 성씨, 어느 본관, 어느 과의 몇 대손이라는 식으로, 즉 대부분의 경우는 허구이지만 자랑할 만한 조상들의 신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인들은 자기 선대가 어떤 역사적 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또 사실에 가까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학교에서 2차 세계 대전(1939~1945) 중에, 한국전쟁(1950~1953) 중에, 1960년대 인권운동 기간에 자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인터뷰하여 발표하는 숙제를 많이 내주는 것은 바로 그런 배경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토론 가능한 주제들

(1) 부모님께 본관을 물어본 뒤, 그 본관에 해당하는 지역을 한국 지도 위에 표시하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2) 주위 친구들의 이름 중에서 본래 지역을 뜻하는 성들을 (예: Steinberg) 모아보고, 직업을 가리키는 성들도 (예: Baker) 모아봅시다. 왜 그런 것들이 성씨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3)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소개할 때 이름을 어떻게 말합니까? 한국 이름을 소개하는 방법과 미국 이름을 소개하는 방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만약 다르다면, 왜 그렇게 다르게 소개합니까? 또한 그런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제 10장 조선을 세운 사람들

거의 500년을 지속한 고려왕조는 1392년에 그 종말을 고하고, 조선왕조로 이어졌다. 이 왕조 교체 과정에는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커다란 내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또는 신라가 말기에 한반도가 서로 다른 정치 세력으로 분열되었다가 고려에 의해 다시 통일되었던 그런 과정도 밟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하층민들의, 예를 들어 농민들의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 고려의 귀족층을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운 것도 아니다. 두드러진 내부 분열 없이, 또한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왕조가 바뀌었다. 그렇다면 왕조 교체는 고려의 내부에서 발생하였음에 분명하다. 특히 농민들의 봉기도 없었으므로, 고려의 내부인 중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던 지배 귀족층 내의 어떤 세력에 의하여 왕조가 교체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고려사회에서 지배세력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었을 터인데, 왜 고려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였을까? 그런 위험한 일을 통해 그들이 얻고자 한 것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이 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무너지는 고려왕조를 다시 세우고자 개혁을 시도한 사람은 공민왕(재위 1351~1374)이었다. 당시 고려의 내정에 깊이 간섭하고 있던 몽골제국을 배척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들이 점유한 토지와 노비를 대폭 줄이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고, 과거제도를 강화한 것 등은 모든 이런 개혁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런 개혁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에 정치·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일부 귀족들은 공민왕을 지지하지 않았고, 이런 대립과 긴장 속에서 공민왕이 암살됨으로써 그의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이즈음 고려사회에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크게 둘로 대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공민왕이 강화한 과거제도를 통해 관료로 진출한 유학자들이었다. 이들은 불교의 부패와 현실정치의 타락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유교적 합리성과 도덕에 기초한 새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대개 공민왕의 개혁정책을 지지하였고, 공민왕이 암살당한 뒤에도 개혁을 계속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왕조차도 살해당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쉽지는 않았다. 즉 이들에게는 개혁을 향한 열정과 그것을 추진할 학식은 있었으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물리력이 없었던 것이다.

한편 다른 또 하나의 세력은 변방에서 힘을 키운 무장들이었다. 고려 말기에는 하다한 외침이 있었다. 몽골, 홍건적, 왜구 등의 침입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들을 물리치면서 공을 세운 무장들이 하나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중앙 유력가문 출신 무장들에 비하여 정치적으로·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았으므로, 전쟁터에서 고생한 것에 비하여 대우가 열악한 것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무력을 갖춘 데 비하여, 한 국가의 개혁을 설계하고 추진할 학식은 부족하였다.

결국 두 새로운 세력이 손을 잡아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급기야 왕조를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유학자와 무장 세력은 어떤 사람들이였을까? 이에 대한 답은 바로 조선왕조를 누가 세웠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홍사대부설이 있다. 이것은 고려 말에 신홍사대부라는 새로운 사회 계층이 출현하여 기존의 귀족 계층을 타도하고 혁명적으로 왕조를 세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신홍사대부는 지방의 중소지주층으로 유학을 공부한 학자이자 과거를 통해 중앙 정계에 진출한 관료였다. 이 설에 따르면, 이들은 불교 중심의 고려사회를 유교 중심의 사회로 바꾸려는 포부를 가졌으며, 경제적으로는 대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중앙의 권문귀족 계층과 대립하다가 급기야 그들을 물리치고 왕조를 바꾸었다.

다른 하나로는 기존지배세력설이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조선왕조를 세운 사람은 새로운 사회 계층이 아니라, 이미 고려사회에서 정치적·경제적 특권을 누리던 지배층 내에서 배출되었다는 설명이다. 이 설이 가능한 이유는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고위 관료를 지내면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던 사람들의 가문배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여 분석한 결과, 신홍사대부를 기존의 중앙귀족들과는 다른 별개의 사회 집단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고려의 귀족 계층 중에서 불교보다는 유교를 새로운 사회 이념으로 지지하고, 또한 새로운 왕조라는 틀에서 사회개혁을 지향한 무리였을 뿐, 기존 지배세력과 이질적인 새로운 계급이나 계층 집단은 아니라는 것이다.

계보나 혼인관계 정보를 통해 볼 때 기존지배세력설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단순히 조선을 세운 사람들은 고려의 귀족이었다고만 하고 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비록 같은 집안의 사촌간, 심지어 형제간에도 얼마든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홍사대부들은 대부분 중앙관료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가치관과 정치관이 많이 달랐다. 이들은 불교를 비판한 유학자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몽골제국을 통해 이미 고려사회에 소개되어 있던 성리학(일명 신유학, Neo-Confucianism)을 신봉한 사람들이었고, 유학을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시험을 통과한 자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 성향은 그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와는 사뭇 달랐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새로 세운 조선사회의 모습이 이전의 고려사회와 달라진 이유다.

실제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출신 집안에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바뀐 것은 많았다. 이를테면, 왕조교체를 전후 하여 불교사회에서 유교사회로 바뀐 것은 전 세계 역사에서 필적할만한 유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사회 변혁이었다. 또한 조선사회의 양반 지배층은 고려의 지배층에 비하여 귀족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출신에 못지않게 자신의 실력도 좀 더 중시되었다. 요컨대, 고려·조선 왕조 교체의 성격은 ‘혁명’이라는 단어보다는 ‘변환’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보다 가까울 것이다.

수업 시 가능한 추가 설명

(1) 공민왕의 개혁에서부터 왕조의 교체에 이르는 과정은 영어판 본문에 보다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그것을 먼저 함께 공부한 뒤,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이를테면 공민왕·이성계·최영·정몽주 등의 일화들을 소개해 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2) “미국은 누가 세웠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재미있는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개는 George Washington을 말하는데, 그의 출신 배경을 제대로 아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혼자 세운 것도 아닙니다. 또한 독립전쟁 후에 국가의 형태를 공화제로 할지, 군주제로 할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공화정을 지지하였으며,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토론을 하면, 학생들이 조선의 이야기를 먼 나라 남의 얘기로만 듣지 않고,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토론 가능한 주제들

(1) 대개의 신홍사대부들은 자기들은 이미 귀족으로서 굳이 과거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벼슬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특권을 통해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보다는 시험에 붙어 정정당당히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 당신의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라고 칩시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려고 속임수를 쓰십니다. 그럴 때 당신은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 아버지에게 세금을 법대로 내라고 용기 있게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도와 함께 몰래 불법을 하여 돈을 더 벌겠습니까? 요컨대, 당신이 올바른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버지가 마구 짓밟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